

다자대결 박지원 1위...민주 우기종·김원이·배종호 각축

목표 민주당 3후보 경쟁 치열 정의당 윤소하 의원 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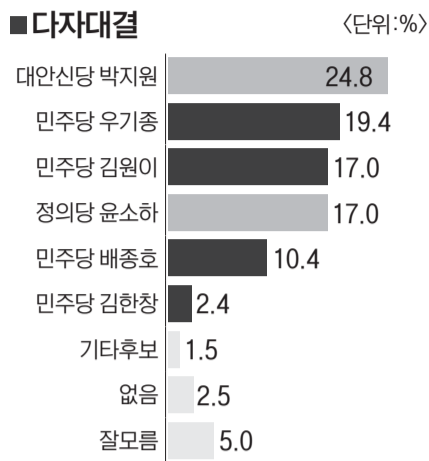
'전남 정치 1번지'로 꼽히는 목포는 현역인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조직력·인지도 등을 앞세운 박 의원이 지역구를 지켜낼 지, 정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현역 의원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 다자대결에서는 현역인 박 의원이 여전히 수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 중 차기 목포 국회의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지원 의원이 24.8%, 민주당 등 다른 정당 후보들을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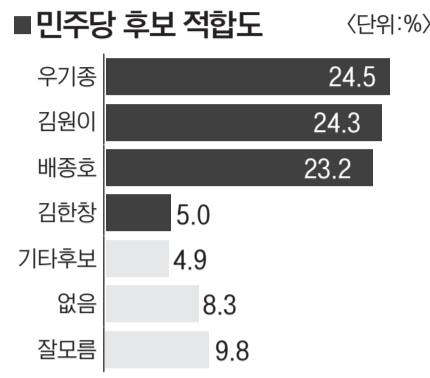
이어 더불어민주당 우기종 전 전남도 정부부지사가 19.4%, 김원이 전 서울시 정부부지사가 17.0%,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17.0%로 오차범위(±4.3% 포인트) 내에



서 혼전세를 보였다. 민주당 배종호 전 KBS기자(뉴욕특파원)·김한창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이 각각 10.4%, 2.4%의 지지율을 얻었다.

박 의원은 제1선거구(원산·연산·용해동)를 비롯한 구 도심에서 강세를 보였고, 우 전 부지사는 삼향·옥암·상동 등 제4·5선거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부지사는 제2선거구(북항·죽교·산정·유달·만호동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박 의원이 60세 이상(33.0%)에서, 우 전 부지사는 30대(27.6%)에서, 김 전 부지사는 40대(25.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묻기 위한 '누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도 우기종 전 부지사(24.5%)와 김원이 전 부지사(24.3%), 배종호 전 KBS 기자(23.2%)가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민주당 후보 선정을 위한



박지원



윤소하



김원이



김한창



배종호



우기종

경선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김한창 전 전문위원은 5.0%의 적합도를 얻는데 그쳤다.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이나'는 21대 총선 정당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49.5%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이어 정의당 후보(18.2%), 대한신당 후보(9.9%) 순이었다.

이밖에 새로운 보수당(3.3%), 자유한국당(2.9%), 민주평화당(2.3%), 바른미래당(1.2%), 민중당(1.0%) 후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광주일보와 kbc 광주방송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목포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자

동응답(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방법은 유선전화 40%, 휴대전화 60%의 RDD(무작위 전화 걸기·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표집 방법은 무선 가상번호 및 유선 RDD 표본 프레임 내 무작위 추출했다. 표본수는 510명이며, 응답률은 6.8%였다. 통계 보정은 2019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 적용(립가중)을 적용했으며, 표본오차는 각 선거구별로 95% 신뢰수준에 ±4.3%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혼전·경선 치열한 9곳

유선 40%·휴대전화 60% RDD 방식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이번 조사는 광주일보와 kbc 광주방송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각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18곳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간 혼전이 예상되거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간 경선이 치열한 선거구 9곳이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 군소정당 중 일부 정당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다.

조사방법은 유선전화 40%, 휴대전화 60%의 RDD(무작위 전화 걸기·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표집 방법은 무선 가상번호 및

유선 RDD 표본 프레임 내 무작위 추출했다.

표본수는 각 선거구별로 최소 501명에서 최대 510명이며, 응답률은 각 선거구별로 5%~11%였다.

통계보정은 2019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 적용(립가중)을 적용했으며, 표본오차는 각 선거구별로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합집산·합종연횡...달아오르는 총선 열기

민주, 공천심사·선대위 발족...한국당·새보수당 통합 논의 급물살
평화당·대한신당 3지대 창당 토론...안철수 설 이후 바른미래 회동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총선 기전 잡기에 들어갔다.

특히, 설 연휴 이후에는 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와 함께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나서며 한국당은 새로운 보수수당과 당 대 당 통합을 위한 공식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 야당들과 안철수 전 의원 등은 제3지대 신당 창당 등 총선의 판도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전략공천 검토대상인 1차 전략공천 지역 15곳을 뺀 238곳 지역구에 대한 후보 공모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28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2월부터 본격적인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앞서 28일에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 22명에 대해 개별 통보에 나설 예정이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가 끝난 뒤 위원장과 실무기구로만 구성된 선거대책위를 우선

발족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중순까지 선대위 구성을 완료하고 당을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민주당은 야당 심판론에도 불을 댕기고 있다. 반(反)개혁적인 무능한 야당을 심판,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당도 급명각 공천관리위 구성을 완료하고 설 명절 이후에는 후보 공모 등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당은 특히 혁신공천 방침을 재확인, 대대적인 불감치를 예고하면서 정권 심판을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혁동위가 추진하는 통합신당 합류 의사를 밝힌 원희룡 제주도지사, 전직 당 대표 및 비상대책위원장, 자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 등과 잇따라 만나는 등 보수 통합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당 대 당 통합 논의에도 착수했다. 양측은 통합 논의에 성과가 있을 때까지 비공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보수 대통합을 위한 혁동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홍보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는 이날 다음 달 중순 통합신당 출범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혁동위는 한국당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통합신당의 공관위원장을 맡는 데 공감했으며 통합신당 출범 이전부터 공천 작업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호남을 뿌리로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등은 이날 토론회를 열고 제3지대 신당 창당 등 통합의 흐름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도 실용정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을 방문하는 등 보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안 전 의원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8일 바른미래당 의원 17명과 여의도 인근에서 귀국 인사를 겸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오찬에서는 중도·실용주의 가치를 내건 제3지대 정당의 역할을 포함한 바른미래당의 진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는 손학규 대표는 제외됐는데 안 전 의원은 별도로 손 대표와 만날 방침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회개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